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 · 준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오사카학원대학	파견기간	2015.09-2016.05
귀국여부	미정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오사카학원대학은 키시베역과 쇼자큐역 사이에 있습니다. 오사카의중심지인 우메다, 난바까지 전철로 약 20-40분정도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위치해 있습니다.</p> <p>대학교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강의실이나 화장실 등 시설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p> <p>학생들레벨이 높은 편은 아니라(※편차치 40정도 됩니다.) 학부 수업시간에 조용히 수업을 듣는 학생은 대체로 적으며 선생님의 제재가 없는 곳은 정말 난장판입니다. 일반 교양의 경우 뒤에서 자거나 밥먹거나 출석체크안하는 경우 결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p>
2015-2학기 수업	<p>필수과목인 오전수업(JSL)과 간사이벤(청강)으로 들었습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왔는데, 처음부터 교환학생은 이공계학생에게는 전공학점이 추가적으로 이수가 불가능하여, 졸업조건(졸업논문, 140학점등)까지 전부 맞추고 왔습니다. 학점을 채우는것보다.</p> <p>처음에는 어학을 배우기위해, 이후 목표를 전환하여 일본내 취직을 목표로 도강, 청강, 취활정보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p> <p>1)JSL 문법&한자 (C class / 유키선생님)</p> <p>①문법 : 기본적으로 처음에 테스트를 본 다음에 수준별로 반이 결정됩니다, 평생 일본어 문법을 공부해본적이 없어서, 초기 분반시험때 고생을 했습니다. 드라마나 방송으로 배운일본어를 언급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잘못된점을 지적해주고, 어느점이 부족한지 확실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숙제가 꽤나 많으신 유키 선생님께 가르침 받았습니다.</p> <p>DCBA순으로 D가 최고 윗반이나 C반 부터는 학부수업도 들을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전도 조금 가능하며, 주어진 숙제량을 잘 해나가면 꽤나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p> <p>개인적으로 경어, 엔트리시트, 대화 공부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p> <p>기본적으로 어설프게 배운 일본어의 잘못된점을 전부다 교정하고, 일본인들도 자주 틀리는 경어 등 취직할 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일본 취업에 꽤나 매달려있었기에, 정말이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르바이트에서도 쓰이며, 한국에서 경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는 잘 없기에 앞으로 갈 학생들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p>

	<p>교과서는 초반 기초 구성 + 문법 + JLPT2급 전반적인 문법을 다룹니다. 가끔 JLPT1급에 해당하는 문법이나 한자도 나오긴 합니다만, 뒷반보다 빈도는 적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따로 프린트 아웃이 나오기 때문에 한주복습안하고 건너뛴경우 프린트가 산처럼 쌓이니 복습 잘하시길 바랍니다.</p> <p>②한자 : 한자는 C 클래스에 배정되었습니다. 솔직히 왜 여기반에 배정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쓰는 것은 안되더라도, 읽는 것이 가능한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C,D 클래스부터는 서양학생은 정말 눈에 띄게 없고, 아시아계(대만, 중국, 한국)중 한자권 학생이 대부분인 것이 특이합니다.</p> <p>한자가 아직 자신 없고, 알고 있는 한자를 복습하고 완벽하게 쓰고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클래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내용은 JLPT2급 책을 학습합니다.</p>
2016-1학기 수업	<p>오전수업은 2학과와 동일합니다.</p> <p>회사내정여부가 불확실하기에 오후 수업은 듣지 않았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1. 교류회</p> <p>초반에 일본 친구 사귀기엔 교류회만큼 좋은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 친구라고 해도 OGU 학생 한정적이니 다른 활동을 하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전 한번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유학한 사람들의 의견과 현지에서 있는 타학생에게 상황을 듣고 판단했습니다.</p> <p>2. Buddy 프로그램</p> <p>Buddy 프로그램이란 일본 학생들이 유학생 친구들을 서포트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출국 전에 OGU에서 유학생 당 1명의 Buddy를 붙여줍니다.</p> <p>그런데, 이거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특이한 상황을 겪은것이긴한데, 월요일 입국으로(1일 지연) 인해 버디가 마중을 나오긴 했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 이였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입학 OT 날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전달받은 것이 없습니다.</p> <p>일본 와서 재류카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혼자 했습니다. 일본국제교류본부도 의지를 안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처음부터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p> <p>3. 그 외</p> <p>Ichat이나 외국인과 교류할 기회도 있고, 유학생을 초청해서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으나, 1학기가 고통스럽다 할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한국인은 파벌에 특정 행사는 외국인 중에서도 서양인(영어권)만 모집하기도 하기도 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겨울에는 정말 춥습니다. 앞서 유학 하신분들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겨울은 실내가 더 추우며, 여름은 정말 덥습니다. 신창 기준으로 보면 매우 따뜻하니 추위걱정은 아하셔도 됩니다.</p> <p>복 필수다! 라는 물건은 국내 전기장판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일본전기장판은 약해서 따뜻하지가 않습니다.</p>
안전	<p>매우 안전합니다. 안전의 위협을 받아본적은 없네요.</p> <p>사는곳도 다른 유학생과 다르게 신오사카에 살았는데, 한번도 삶의 위협을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남학생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치안이 매우 잘되어있으며, 순경순찰, 마을 사람들의 방법활동등 매우 활발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지금 이글을 읽는 분이시라면, 앞서 선배분의 4-5년치 후기 글을 모두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제 생각을 적겠습니다.</p> <p>집을 구하는 것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홈스테이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홈스테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집주인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숙사보다는 좋습니다.</p> <p>저처럼 구숙이 싫고, 개인적으로 철야를 자주해야하는 특성 + 아르바이트 + 취업활동 + 투어링으로 인한 자주 집을 비움의 경우 기숙사나 개인적인 집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p>기숙사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면 사람 살 곳이 못됩니다. 소음을 즐기고 더러워도 딱히 상관없다는 분이면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아마 없겠지요.</p> <p>개인적으로 집을 구하시는 것은 매우 힘들거라 예상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키킨 레이킨이라고하는 일본 부동산 제도를 공부를 하시고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누군가 알려주는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텐데,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부동산업자와 대화가 진행이 안되니 개인집을 구하실 경우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시길 바랍니다.</p> <p>대표적으로 알려드릴 것은 집을 구하는데 ‘보증인’ 이 필요하며 보증인은 일본에 사는 일을 하는 일본인을 한정치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2년치를 한번에 들어야 하며, 집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거나 불가능 할수도 있으며, 남향인지, 그림자로 가린다거나, 전철로 인해 소음이 있다거나, 그리고 월세 + 관리비가 얼마인지 가스, 수도 신청등 전부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이런 계약을 진행하시려면 최소한 의사소통이 되는 언어실력은 갖추고 오시길 바랍니다.</p> <p>제가 사는 숙소의 경우 학교와는 2정거장 떨어진 신오사카역이며, 숙소에 대해 설명을 하여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 생략합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p> <p>모두 학생식당의 밥을 먹을것이라 생각하는데, 학교 생활중 한번도 학생식당을 이용해본적이 없습니다.</p>

	스이타 역 근처의 업무슈퍼에서 찬거리를 사서 오전, 오후 식사를 해결 하였고, 부득이하게 점심식사를 할 경우 편의점으로 가볍게 해결했습니다. 이유는 학교 근처 외부식당이 말로 표현하기 매우 힘든 애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상세히 적자면 방학이 되면 유동인구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먹는게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은 신창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생각하면 쉽게 이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통	신오사카에서 키시베까지 5.6km이기에 자전거로 통학을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전철을 타야할 경우 편도 160엔을 지불하고 탔습니다. JR은 정기권 학생할인이 안되니 한류인근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 소요 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70000원	제주항공
Fees	1) 국민 건강보험(학교에서 강제함 무조건 들어야함) : 월 2480엔 . 2) 주거지 화재보험 : 2년치 20000엔 3) 학교 보험 : 2학기 8,000엔	
보험료	일본 보험으로 해결	
숙소	월 34000엔	
식비	한끼 식사 500-1500엔 내외	알바 마카나이/집 식사를 제외한 순수 외식을 했을 경우입니다.
교통비	0엔	출석의 85%이상을 자전거로 통학 부득이하게 탈 경우 왕복(320엔)
책값	한학기당 3-4000엔정도는 쓴것 같습니다.	
기타1	여가 : 4-10만엔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타2	취업활동 : 20만엔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계	6-8만엔	

5. 출국 전 준비사항

목적은 가지고 유학을 가시는것이니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도와줄거란 생각을 버리세요. 일본의 국제교류본부처는 앞서 선배들이 알려준 그 이상으로 도움이 별로 안됩니다. 힘들면 연락해라고 하지만 힘들 때 연락하면 그건 원래 일본이 그런거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답을 듣게 되테니 처

음부터 기대를 안하면 좋습니다.

학점의 경우 각 학과 조교와 상담하세요. 국제교류본부는 교환학생 담당이지 학점을 관리해주진 않습니다. 전공학점 부족이나 졸업논문, 시험문제로 졸업 못할 것 같으면 5학년을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교환프로그램중에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최소한 자기 의사표현은 할줄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니 특성상 JLPT를 따고 성적은 있는데, 말은 못합니다. 당장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못하면 그때부터 - 손해를 보게 될테니까요.

앞에서 말했지만, 일본에 대한 상식과 정보를 모두 알고 오시길 바랍니다. 큰소리 친다고해서 다 이루어 지는 것 없으며(실제로 그런 한국인이나 중국인있습니다.) 무조건 원리 원칙, 순서대로 이루지는 국가다보니 한국을 생각하고 오셨다가는 여러부분에서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와서 아르바이트로 괜찮겠지는 생각은 꼭 버리기 바랍니다. 작년 겨울부터 마이넘버가 도입이 되었으며, 파트타임 알바의 노동시간제한과 투잡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일주일 28시간 아르바이트 하느라 수업듣느라 그러다 보면 결국 생존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가 되지 유학생이 아니게 되니까요.

참고로 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학교측에서 알바를 그만두게 할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강제로 비자를 소멸시켜 귀국을 시킬수도 있으니, 가난하게 살겠다는 마음은 접으시고 꼭 돈 많이 가져오세요. 언제 어디에 쓰일지 모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정말 좋았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교환학생 기회를 준 국제 교류본부처의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공계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전부다 왜가냐는 식으로 말리기도 했으나, 초기 목적이 취직이었기에, 대학3학년부터 국가근로로 유학비를 모우면서 유학준비를 했는데, 결국 꽤 괜찮은 직장에 취업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이지 기쁩니다.

처음에 일본어 능력이 너무 부족한점이 많아 밤을 새가면서 숙제했던 것을 생각하면, 좀 더 일찍 공부를 할껀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취업활동을 하면서는 일본 특유의 관례라던가 특징등 이력서 쓰면서 필기시험과 SPI시험 준비하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유학생친구들은 같은 시간에 여행다니고 자랑할 사이, 카페에 아침일찍 출근 찍고 주변사람 대화 들으면서 이력서 쓰고 퇴고하고, 그리고 시간 쪼개서 선물집에서 알바도 했습니다. 정말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딱 6개월 반복 하니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이런 생활하면서 확실히 느낀건 학교의 선생님을 의지하면 참 도움이 될것이라는 점입니다. 선생님들의 그 누구하나 빠지않고 좋은 분이 십니다. 특히나 앞 선 배분들의 후기를 읽고 마스다 선생님 수업은 전부다 도강을 했습니다. 수업방식부터 학생들을 향한 태도라던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환학교 보다 좋은점은 외국학생도 정말 많이 오며, 쉽게 친해질수 있다는점, 그리고 전세계 다양한 사람의 관점을 볼수있으며, 친해지면 외국어도 빠르게 습득하니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월부터 5월까지 정확히 8개월 정도 수업을 듣게 되실텐데, 꼭 하나라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신오사카집



단지리축제



교토 기온



취업활동시 구매한 정장



취업한 회사가 독일계라
독일어를 배워 친해진 독일 친구들



시마나미해도 자전거 라이딩